

마이너리티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연구*

고 광 명**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사회에서 재일기업을 설립한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어떠한 경영이념을 갖고 경영활동을 영위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있다. 본고에서는 경영이념 유형별에 따른 재일제주인 기업가별 특성(출생시기별, 출신지역별, 학력별, 경영형태별, 기업가 유형별)을 고찰하였는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출생시기는 1930~1939년이 25명(30.1%), 출신지역은 북제주군이 33명(39.8%), 학력은 대졸이 43명(51.8%), 경영형태는 주식회사가 67명(80.7%), 기업가 유형은 사업전업이 32명(3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1930년 이전, 1930~1939년, 1940~1949년 출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규범형은 1950년 이후 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제주도 모든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규범형과 방침형은 제주시와 북제주군 출신의 비율이 개방형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넷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대졸과 고졸 출신이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규범형과 방침형은 자계형 다음으로 대졸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영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주식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자계형과 규범형은 개인경영의 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기업가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규범형, 방침형, 개방형 경영이념에 비해 사업전업이나 사업전향, 가업계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유형이 기업가별 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경영이념 유형은 자계형 비율이 규범형, 방침형, 개방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제주인 자신들의 갖고 있는 사고(가훈, 신조, 이념, 철학 등)를 바탕으로 노력, 신

*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5B5A07064510).

**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소장

용, 성실, 근면, 인내, 약속, 신념 등 기업가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행동상의 자계와 후계자에 대한 교훈이나 모범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자세와 언동을 강하게 구속하는 성격의 경영이념을 가졌던 것이다.

주제어 : 마이너리티, 재일제주인, 기업가, 경영이념

I. 서 론

현재 재일(在日)제주인¹⁾은 2011년 기준으로 재일한인 545,401명 중 86,231명 (15.8%)으로 경상남도(148,496명), 경상북도(109,702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入管協會, 2012). 이들 대부분은 간토(關東)의 도쿄(東京) 25,123명(29.1%), 간사이(關西)의 오사카(大阪) 56,025명(64.9%)이 거주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제주도 출신자들은 일본인으로부터 조센징(朝鮮人)이라는 민족적 차별을 받으면서 생활하였으며, 재일한인으로부터 섬놈이나 유배지(流配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중적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광명, 2014: 1).

특히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항로(君が代丸)가 취항하면서 많은 제주도 출신자들은 고무공업, 방직(紡績)공업이 발달했던 오사카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 초기에는 섬유, 인쇄, 군수(軍需)공장, 재생자원(자갈이나 고철수집), 금속제조, 선박회사, 방직, 철강, 가방, 재봉(봉제), 플라스틱, 유리, 금속, 광부광산, 신발(구두)제조, 토목건축, 고무 등 대부분 조선, 탄광, 토목공사, 방직, 고무공장에 단순노동으로 투입되어 일하면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려만 했다(고광명, 2013).

최근에는 고무제조, 가방제조, 플라스틱, 봉제업, 샌달·슈즈, 피혁, 금속제품 등의 업종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庄谷怜子·中山徹, 1997). 결국 제주도 출신들은 플라스틱, 고무, 가방, 신발,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숙박업, 유기업, 음식점, 부동산, 자원재생산업 등 서비스 업종에 이르기까지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였다(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

또한 이들은 일본 사회 속에서 자긍심과 애향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재일 제주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고자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였다(고광명,

1) 재일제주인 인구는 2000년 109,973명, 2005년 102,019명, 2010년 90,882명, 2012년 86,231명으로 나타나 고령화, 귀화, 이주자 감소 등으로 인해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8). 그 중에서 일부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은 일본 사회에서 초지관철(初志貫徹), 시간 엄수(時間嚴守), 성실, 신용, 인내, 인간중심경영 등을 경영정신으로 삼아 상당한 경영성과를 이루어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²⁾

이러한 배경에는 재일제주인 기업가(起業家)들이 해방 전후를 계기로 마이너리티(minority) 사회를 형성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한민족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 이들 기업가들은 며저리티(majority)에 대한 반발성을 강화하고 불리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강한 정신력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왔다(河明生,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사회에서 재일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어떤 경영이념을 갖고 경영활동을 영위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마이너리티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Management Philosophy) 유형에 따른 기업가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영이념의 의미

경영이념이란 용어는 창업자나 전문경영자가 기업경영에서 가지는 정신적 지주, 기본적 가치, 실천적 행동지침, 신념, 태도 등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특히 경영이념은 경영사상이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암시적,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고에 지나지 않아 기업이념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 1991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납부한 고액 납세자는 동경 4명(4,981백만 엔), 고베 2명(1,348백만 엔), 오사카 25명(6,305백만 엔) 등 총 31명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오사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 납세 금액을 보면, 전체 12,634백만 엔 중에서 제주시 6,456백만 엔(9명), 한림읍 2,031백만 엔(5명), 남원읍 454백만 엔(4명), 표선면 1,689백만 엔(3명), 대정읍 1,201백만 엔(3명), 조천읍 172백만 엔(2명), 나머지(애월읍 390백만 엔, 한경면 102백만 엔, 서귀포시 49백만 엔, 구좌읍 49백만 엔, 성산면 41백만 엔) 등은 각각 1명으로 제주시 출신이 50% 이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91년도 신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재일제주인은 한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나라출판; 『1,000万円を越える高額納稅者全覽 大阪國稅局管内』(각 년도), 清文社; 『500万円を越える高額所得者全覽 大阪國稅局管内』(각 년도), 清文社.

기업가의 경영철학이나 경영신조, 그리고 경영사상이 기업이념으로 명시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이를 경영이념이라 볼 수 있다(고광명, 2010: 3쪽).

특히 경영활동에서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경영이념은 기업을 지탱하는 가치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존재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경영이념이 경영활동에 있어서 목적이나 행동규범, 활동방침 뿐만 아니라 조직에 공유될만한 가치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경영이념은 기업이념이 행동으로 나타나 경영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집결시키는 경영이념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경영이념이란 표현은 경영자 개인이 가지는 신념과 종업원의 욕구·동기, 사회적 환경의 요구를 포함한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표출되는 기업의 가치관 및 목적, 지도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광명, 2010: 3쪽).

그러나 이처럼 기업경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이념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정의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는 경영이념의 동의어로서 경영사상 (management thought)이나 경영철학(management philosophy), 경영신조(management creed), 사시(management principles), 사훈(corporate identity), 비전(vision)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경영이념이란 용어에서 무엇을 논의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광명, 2010: 4쪽).

따라서 경영이념이란 경영자가 가치판단을 내릴 때 의존하게 되는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고,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며, 아울러 그것을 설명해 주거나 나아가 그러한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영자가 어떠한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행동과 정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경영이념은 경영자가 가치판단을 내릴 때 근거가 되는 기준이나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지침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닌 기업이나 경영자의 모든 속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광명, 2010: 5쪽).

2. 기준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편차별 마이너리티라는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일본인 경영자에 비해 불리한 기업환경에 있으면서 신규 사업을 일으킨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개념은 제주도 출신으로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생업을 위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연구는 이주의 역사, 언어, 정체성, 생활사, 문화 등 역사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기업가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자영업 비율이 일본인들의 자영업 비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경제경영)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을 고찰하기 위해 경영학적 관점에서 재일한인(제주인) 기업가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에스닉(ethnic)과 마이너리티(minority)의 기업가활동 관련 대표적인 연구로는 B.F.Hoselitz(1966), F.W.Young(1971), 타지마(田嶋淳子, 1998), 河 明生(1996, 1998, 2003) 등의 연구가 있다. B.F.Hoselitz(1966)에 의하면 머저리티(majority)와 다르고 사회적 내지 문화적으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마지막 맨(marginal man)은 기업가활동에 있어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창조적으로 적응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F.W.Young(1971)은 기업가활동에 있어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마이너리티의 특성의 일부를 밝혔지만 그 중 반발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타지마(田嶋淳子, 1998)는 신주쿠(新宿) 오쿠보(大久保) 지역의 한국인 뉴커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스닉 기업(기업가)의 특성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족 네트워크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 연구는 종교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에스닉 기업가 층을 형성하면서 뉴커머의 접점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河 明生(1996, 1998)은 재일한국인 1세 조선인의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너리티의 기업가 활동을 고찰하였으며, 이어서 재일한국인 1세와 재일한국인 2·3세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마이너리티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한 바 있다. 河 明生(2003)은 재일한인의 기업가활동을 유교적 가치관인 금의환향(錦衣還鄉)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표현하여 한민족적 소양이 높은 재일한국인 1세 기업가들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국내외 재일한인 기업가 관련 대표적인 연구로는 姜 誠(1996), 金美德(2002), 河 明生(2003), 梁京姬(2009), 韓載香(2010), 李洙任編(2012) 등이 연구가 있다. 姜 誠(1996)은 재일한인들이 과친코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로 “국적 차별에 의한 취직 차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위신이 낮아 일본 기업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3K(Kitsui·Kitanai·Kiken) 업종이나 틈새시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金美德(2002)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우, 중소영세업자가 많고 한정된 경영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면승부보다는 틈새나 기습전법 또는 상식파괴 등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던 것이다. 향후 이들이 정면 돌파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신선한 발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金美德, 2002: 34).

그리고 河 明生(2003)에 의하면 재일한인들은 일본 사회 속에서 공직에 취업할 수 없

었기 때문에 경제적 상승에 대한 지향성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탁월성을 발휘하여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河 明生, 2003). 梁京姬(2009)은 재일기업가의 한국 사회 및 금융업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의 소수민족으로서 일치단결하여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통해 성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梁京姬, 2009: 16~30). 韓載香(2010)은 재일한국·조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이나 성공한 여러 산업(제조업, 토목업, 유기업 등)에서 기업의 자원조달과 그 기반에 주목하면서 전후 약 50년간에 거쳐 이루어낸 역사적 특징이나 그것이 형성된 요인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기업·산업을 대상으로 다이나미즘(dynamism)과 커뮤니티를 다한 경제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경제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李洙任編(2012)은 일본 사회에서 재일코리안이 직면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심리적 반발로서 차별적, 배제적 규범이 재일코리안의 기업가정신을 연마할 수 있는 요인으로 형성되어 치열한 경영환경 하에서 성공을 거둔 경제인이 많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일제주인 기업가 관련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광명(2009), 고광명(2013), 고광명(2014) 등의 연구가 있다. 고광명(2009)은 일본 사회에서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어떠한 경영활동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이주 초기에 가방, 고무공장 등 영세제조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유기업, 야기니쿠, 부동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고광명(2013)은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삶, 경영활동 특성, 기업가활동 사례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는 재일제주인의 의미와 유형, 이주 역사, 인구와 생업,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지역사회 공헌, 그리고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사회적 배경, 기업가활동 등에 대해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고광명(2014)은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후 일본의 고무공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오사카와 효고(兵庫)현 지역에서 다른 출신지역에 비해 화학공업·피혁·고무·비닐제품제조 분야에 많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오사카에서 고무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재일제주인 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자본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장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risk)를 감수하면서 장래의 포부를 가지고 창의성과 이노베이션(innovation), 도전정신을 통해 재일제주인의 기본형성에 유연하게 대처한 기업가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국내에서는 재외(在外)한상을 중심으로 한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재일한인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재일한인의 경영활동을 비롯한 기업가(상공인, 기업경영 등)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결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을 고찰하는 것으로 보면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일제주인 연구에 중요한 학문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역사성과 정체성을 체계화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關西版)』 자료에 수록된 재일한인 기업가 중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제주도 출신 기업가 562명(大阪府 523명, 京都府 8명, 兵庫懸 31명)을 우선 추출한 후, 경영이념 유형에 따른 기업가별 특성 관련 자료가 양호한 83명(大阪府 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기업가의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문단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가별로 기록하였다. 우선,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었던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 가의 경영이념 유형 변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Chi-Square 검증을 통해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의 경영이념 유형 특성에 따른 빈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활용하였다.

3. 분석을 위한 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회에서 활동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³⁾, 기업가별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경영이념 유형은 자계형(自戒型), 규범형(規範型), 방침형(方針型), 개방형(開放型) 등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 내용을 보면, ① 자계형 경영이념은 개인의 존중, 근면, 정직, 전문가로서의 자랑, 검약 등 최고경영자 자신이 행동상의 자제와 후계자에 대한 교훈이나 모범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스스로의 자세와 언동을 강하게 구속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영이념은 윤리적·도덕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② 규범형 경영이념은 도전, 창조성, 종업원 존중, 종업원의 단결·화합 등 기업 내부에서 사원 통솔용 혹은 내부 관리·통제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것은 사내 표어로서 사내보다 그 외 사내 간행물 등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상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영이념은 이른바 목표관리나 TQC 운동의 일환 혹은 그 전제로서 경영이념 설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③ 방침형 경영이념은 고객지향, 기술의 우위성, 서비스 정신, 주주, 여성의 활용 등 기업의 경영전략·방침 혹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에 대해 사회일반에 호소하는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존재 이유(목적·사명)를 명확히 밝히거나 기업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PR적 의도가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영이념은 대외적 효과를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조직의 기본 방향이나 전략적 사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지도성·구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④ 개방형 유형은 사회와의 공생,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 국제화, 국가에 대한 봉사, 인류 등 인간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미래 사회에 도전하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 등을 토대로 조직구성원 등이 함께하는 경영이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구분한 경영이념 유형을 바탕으로 <표 1>에서 주장하는 경영이념 구성요소에 가장 가까운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가별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社会經濟生產性本部, 1998).

3) 본 연구에서는 재일기업의 경영이념에 대해 기존연구에서 발표된 자계형(自戒型), 규범형(規範型), 방침형(方針型)이란 3가지 유형에 개방형(開放型)을 추가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鳥羽欽一郎·浅野後光, 1984: 38~39).

<표 1> 경영이념 구성요소

(단위 : %)

순위	구성 요소	구성비	순위	구성 요소	구성비
1	고객지향	72.7	11	근면	25.0
2	사회와의 공생	71.7	12	국제화	23.8
3	도전	55.1	13	정직	23.4
4	선구자정신·혁신·창조성	50.1	14	주주	21.6
5	종업원 존중	49.7	15	전문가로서의 자랑	18.8
6	종업원의 단결·화합	38.4	16	국가에 대한 봉사	10.9
7	기술의 우수성	37.8	17	기타	10.7
8	서비스 정신	33.6	18	인류	9.5
9	개인 존중	32.1	19	검약	4.9
10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	26.4	20	여성의 활용	1.8

자료 : 社会経済生産性本部(1998), 『社是社訓に関する調査』 .

다음으로 기업가별 항목과 관련하여 ① 출생시기는 1930년 이전, 1930~1939년, 1940~1949년, 1950년 이후와 같이 4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② 출신지역은 1946년 도제(道制) 실시 이후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과 같이 4개로 분류하였다. ③ 학력은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④ 경영형태는 개인경영, 유한회사, 법인회사와 같이 3개로 구분하였으나 공업소는 개인경영으로 범주화하였다. ⑤ 기업가 유형은 생계유지, 사업전업, 사업전향, 가업계승 등과 같이 4가지로 제시되어 구분하였다. 이처럼 기업가를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와 관련하여 프로필에서 많이 표현되거나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했기 때문이다 (고광명, 2010: 9~10).

IV. 연구결과

1. 표본 특성

<표 2>은 경영이념 유형에 대한 표본 특성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출생시기는 1930~1939년 25명(30.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40~1949년 22명

(26.5%), 1930년 이전 20명(24.1%), 1950년 이후 15명(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은 북제주군 33명(39.8%), 제주시 24명(28.9%), 남제주군 14명(16.9%), 서귀포시 11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43명(51.8%), 고졸 28명(33.7%), 전문학교졸 7명(8.4%), 중졸 3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형태는 주식회사 67명(80.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경영 12명(14.5%), 유한회사 3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유형은 사업전업 32명(3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업계승 25명(30.1%), 사업전향 19명(22.9%), 생계유지 6명(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이념 유형은 자계형 40명(48.2%), 규범형 15명(18.1%), 방침형 11명(13.3%), 개방형 4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항목	N	빈도	구분	항목	N	빈도
출생 시기	1930년 이전	20	24.1	경영 형태	개인경영	12	14.5
	1930~1939년	25	30.1		유한회사	3	3.6
	1940~1949년	22	26.5		주식회사	67	80.7
	1950년 이후	15	18.1		생계유지	6	7.2
출신 지역	제주시	24	28.9	기업가 유형	사업전업	32	38.6
	북제주군	33	39.8		사업전향	19	22.9
	서귀포시	11	13.3		가업계승	25	30.1
	남제주군	14	16.9		자계형	40	48.2
학력	중졸	3	3.6	경영 이념	규범형	15	18.1
	고졸	28	33.7		방침형	11	13.3
	전문학교졸	7	8.4		개방형	4	4.8
	대졸	43	51.8	합계		83	100.0

주 : 조사한 기업가(83명) 중 결측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경영이념 유형별에 따른 특성

1) 출생시기별 특성

<표 3>에서 살펴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930~1939년 25명(30.1%), 1940~1949년 22명(26.5%), 1930년 이전 20명(24.1%), 1950년 이후 15명(18.1%)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출생시기별 특성을 보면, 자계형은 1930년 이전 8명(9.6%), 1930~1939년 14명(16.9%), 1940~1949년 14명(16.9%), 규범형은 1950년 이후 6명(7.2%)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이념 유형별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9)=96.661$ $p=0.000$)가 있었으며, Cramer's V 값이 .540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경영이념 유형에 따라 출생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연령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출생시기별 분포

(단위 : 명, %)

유형 \ 출생시기	1930년 이전	1930~1939년	1940~1949년	1950년 이후	χ^2	p	Cramer's V
자 계 형	8(9.6)	14(16.9)	14(16.9)	4(4.8)	96.661	0.000	.540
규 범 형	3(3.6)	4(4.8)	2(2.4)	6(7.2)			
방 침 형	5(6.0)	2(2.4)	2(2.4)	2(2.4)			
개 방 형	2(2.4)	1(1.2)	1(1.2)	0(0.0)			

주) * $p<.05$, ** $p<.01$, *** $p<.001$

2) 출신지역별 특성

<표 4>에서 살펴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북제주군 33명(39.8%), 제주시 24명(28.9%), 남제주군 14명(16.9%), 서귀포시 11명(13.3%) 등의 비율을 나타났다.

출신지역별 특성을 보면, 자계형은 제주시 13명(15.7%), 북제주군 14명(16.9%), 남제주군 8명(9.6%), 규범형은 북제주군 6명(7.2%)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이념 유형별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9)=86.994$, $p=0.000$)가 있었으며, Cramer's V 값이 .512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영이념 유형에 따라 출신지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네

트워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출신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유형 \ 출신지역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χ^2	p	Cramer's V
자계형	13(15.7)	14(16.9)	5(6.0)	8(9.6)	86.994	0.000	.512
규범형	4(4.8)	6(7.2)	3(3.6)	2(2.4)			
방침형	4(4.8)	5(6.0)	1(1.2)	1(1.2)			
개방형	1(1.2)	2(2.4)	0(0.0)	1(1.2)			

주) * p<.05, ** p<.01, *** p<.001

3) 학력별 특성

<표 5>에서 살펴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대졸 43명(51.8%), 고졸 28명(33.7%), 중졸 3명(3.6%), 전문학교졸 7명(8.4%) 등의 비율을 나타났다.

학력별 특성을 보면, 자계형은 고졸 12명(14.5%), 대졸 22명(26.5%), 규범형은 대졸 9명(10.8%), 방침형은 대졸 7명(8.4%)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이념 유형별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9)=95.222$, p=0.000)가 있었으며, Cramer's V 값이 .479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영이념 유형에 따라 학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사고력(판단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유형 \ 학력	중 졸	고 졸	전문학교졸	대 졸	χ^2	p	Cramer's V
자계형	2(2.4)	12(14.5)	3(3.6)	22(26.5)	95.222	0.000	.479
규범형	0(0.0)	6(7.2)	0(0.0)	9(10.8)			
방침형	0(0.0)	2(2.4)	2(2.4)	7(8.4)			
개방형	0(0.0)	3(3.6)	0(0.0)	1(1.2)			

주) * p<.05, ** p<.01, *** p<.001

4) 경영형태별 특성

<표 6>에서 살펴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주식회사 67명(80.7%), 개인경영 12명(14.5%), 유한회사 3명(3.6%) 등의 비율을 나타났다.

경영형태별 특성을 보면, 자계형은 주식회사 34명(41.0%), 규범형과 방침형은 주식회사 각각 10명(12.1%)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이념 유형별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6)=95.609$, $p=0.000$)가 있었으며, Cramer's V 값이 .620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영이념 유형에 따라 경영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규모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 경영형태별 분포

(단위 : 명, %)

유형 \ 경영형태	개인경영	유한회사	주식회사	χ^2	p	Cramer's V
자 계 형	5(6.0)	1(1.2)	34(41.0)	95,609	0.000	.620
규 범 형	5(6.0)	0(0.0)	10(12.1)			
방 침 형	1(1.2)	0(0.0)	10(12.1)			
개 방 형	0(0.0)	0(0.0)	4(4.8)			

주) * $p<.05$, ** $p<.01$, *** $p<.001$

5) 기업가 유형별 특성

<표 7>에서 살펴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사업전업 32명(38.6%), 가업계승 25명(30.1%), 사업전향 19명(22.9%), 생계유지 6명(7.2%) 등의 비율을 나타났다.

기업가별 특성을 보면, 자계형은 사업전업 16명(19.3%), 사업전향 11명(13.3%), 가업계승 11명(13.3%), 규범형은 사업전향과 가업계승 각각 5명(6.0%)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이념 유형별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9)=93.137$, $p=0.000$)가 있었으며, Cramer's V 값이 .530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영이념 유형에 따라 기업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7> 기업가 유형별 분포

(단위 : 명, %)

기업가 유형	생계유지	사업전업	사업전향	가업계승	χ^2	p	Cramer's V
자계형	2(2.4)	16(19.3)	11(13.3)	11(13.3)	93.137	0.000	.530
규범형	2(2.4)	3(3.6)	5(6.0)	5(6.0)			
방침형	1(1.2)	4(4.8)	3(3.6)	3(3.6)			
개방형	0(0.0)	3(3.6)	0(0.0)	1(1.2)			

주) * p<.05, ** p<.01, ***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재일기업가의 『在日韓國人實業名鑑(關西版)』 목록자료를 이용하여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출생시기는 1930~1939년 25명(30.1%), 출신지역은 북제주군 33명(39.8%), 학력은 대졸 43명(51.8%), 경영형태는 주식회사 67명(80.7%), 기업가 유형은 사업전업 32명(3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1930년 이전, 1930~1939년, 1940~1949년 출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규범형은 1950년 이후 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자계형은 1950년 이전에 출생하여 일본 이주 초기에 경영활동을 영위한 기업가가 많은 반면, 규범형은 1950년 이후 출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제주도 모든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규범형과 방침형은 제주시와 북제주군 출신의 비율이 개방형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들은 1945년 전후를 계기로 사회적이나 경제적 목적 등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산남지역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출신보다는 산북지역의 제주시나 북제주군 출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대졸과 고졸 출신이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규범형과 방침형은 자계형 다음으로 대졸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결

국, 이들은 아주 초기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학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일본으로 아주한 이후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생존, 적응하기 위해 고학력을 가진 기업가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경영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주식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자계형과 규범형은 개인경영의 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소자본으로 가방제조, 신발제조 등의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업전업이나 사업 전향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업가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계형은 규범형, 방침형, 개방형 경영이념에 비해 사업전업이나 사업전향, 기업계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들의 갖고 있는 사고(가훈, 신조, 이념, 철학 등)를 바탕으로 노력, 신용, 성실, 근면, 인내, 약속, 신념 등 기업가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성격의 경영이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유형은 기업가별 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경영이념 유형은 자계형 비율이 규범형, 방침형, 개방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한편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들은 개인특성에 따라 경영이념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생계유지나 사업 전업을 중심으로 경영이념을 설정하였지만 재일제주인 2·3세의 경우는 사업을 계승하면서 경영이념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재일기업가의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구술 채록을 통해 통계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연구대상을 2세에서 3세까지로 확장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일본인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가 미약하고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영이념(종업원과의 관계, 제품에 대한 질, 서비스 정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보다는 평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조를 경영이념으로 인식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왔고, 차별되어져 온 이들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정신 등을 고찰하여 이들 기업가의 역할을 다시 되새겨 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 고광명, 2009,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 『日本研究』 12, 293~313.
- _____, 2010, 「일본기업의 경영이념 유형별에 따른 특성 연구」, 『경영경제연구』 29(2), 1~20.
- _____, 2013,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14, 「일본의 고무공업과 재일제주인 기업가」,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 『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
- 姜 誠, 1996, 『5グラムの攻防戦一パチンコ30兆円産業の光と影』, 集英社.
- 金美德, 2002, 「日本のベンチャー企業と在日コリアン企業の比較研究」, 『同胞経済研究』 5(夏),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会, 34.
- 梁京姬, 2009, 「在日韓国人企業家が韓国の金融業界に及ぼした影響—新韓銀行を中心に」, 『現代韓国朝鮮研究』 9, 16~30.
- 李洙任編, 2012, 『在日コリアンの経済活動—移住労働者, 起業家の過去現在未来』, 不二出版.
- 社会経済生産性本部, 1998, 『社是社訓に関する調査』.
- 入管協會, 2012, 『在留外國人統計』.
- 庄谷怜子・中山 徹, 1997, 『高齢在日韓国・朝鮮人一大阪における「在日」の生活構造と高齢福祉の課題』 御茶の水書房.
- 在日本濟州道民會, 1993, 『日本의 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나라출판.
- 田嶋淳子, 1998, 『世界都市・東京のアジア系移住者』, 学文社.
- 鳥羽欽一郎・浅野後光, 1984, 「戦後日本の経営理念とその変化」, 『組織科学』 18(2), 38~39.
- 河 明生, 1996, 「日本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の起業者活動—在日一世朝鮮人の事例分析」, 『経営史学』 30(4), 59~78.
- _____, 1998, 「日本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の‘起業者精神’—在日一世韓人と在日二、三世韓人ととの比較」, 『経営史学』 33(2), 50~74.
- _____, 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 : 在日韓人事例研究』, ITA.
- 韓載香, 2010, 『在日企業の産業経済史—その社会的基盤と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学出版会.
- 『1,000万円を越える高額納税者全覽 大阪國稅局管内』(각 년도), 清文社.
- 『500万円を越える高額所得者全覽 大阪國稅局管内』(각 년도), 清文社.
- B.F.Hoselitz, 1966, "Main Concepts 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Implications of Technical Change" in B.F.Hoselitz and W.E.Moore(eds).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Unesco-Mouton, 26 ~27.
- F.W.Young, 1971, "A Macro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Entrepreneurship" in P.Kilb-y(ed),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Macmillan : Free Press, 141~143.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Minority Jeju Entrepreneurs
Residing in Japan

Ko, Kwang-M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management philosophies Jeju entrepreneurs residing in Japan, who established companies in Japanese society, had for carrying out management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by time of birth, by native place, by level of education, by business type and by type of entrepreneur—of each Jeju entrepreneur residing in Japan, according to type of management philosophy.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for time of birth, 25 people (30.1%) responded they were born between 1930 and 1939; for native place, 33 people (39.8%) reported to have been from Bukjeju-gun(North Jeju-gun); 43 people(51.8%) responded university graduates in terms of level of education; 67 people(80.7%) answered corporation for business type, and 32 people(38.6%) answered full-time entrepreneur for type of entrepreneur, all showing the highest ratio respectively. Seco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y time of birth, the ratio of births before 1930, between 1930 and 1939 and between 1940 and 1949 was high for self-discipline type, while the ratio of birth after 1950 was relatively high for norm type. Thir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y native place, the ratio of all areas in Jeju-do was high for self-discipline type, while the ratio of Jeju city and Bukjeju-gun origin was slightly higher for norm type and policy type than open type. Fourt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y level of education, the ratio of university graduate and high school graduate was high for self-discipline type, whereas the ratio of university graduate was relatively and slightly higher for norm type and policy type following self-discipline type. Fifth, in terms of business type, the ratio of corporation was relatively high for self-discipline type, but the ratios of private management type were the same for self-discipline type and norm type. Sixt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y type of entrepreneur, the ratio of full-time entrepreneur, conversion to business, and family business succession was higher for self-discipline type, in comparison with norm type, policy type and open type management philosophies.

* Director, Jeju Multicultural Education & Welfare Institut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management philosophy of minority Jeju entrepreneurs residing in Japa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racteristics by entrepreneur. In particular, among all types of management philosophy, the ratio of self-discipline type was found to have been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norm type, policy type and open type. This indicated that Jeju entrepreneurs residing in Japan had the management philosophy to restrain their own posture, speech and behaviors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their unique moral lessons or set examples to their heirs and display their self-discipline to their behaviors including efforts, credibility, sincerity, diligence, patience, promise and faiths based on their own thinking (family motto, principles, ideas, philosophy, etc.).

Key Words : Minority, Jeju Residing in Japan, Entrepreneur, Management Philosophy.

교신 : 고광명 631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63,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E-mail: kkm0630@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20. 01. 26

심사완료일 : 2020. 02. 03

게재확정일 : 2020. 02. 06

<부록 1> 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기업가	출생년도	출신지역	학력	경영형태	기업가 유형
康○○	1942	서귀포시	建國高卒	개인경영	생계유지
姜○○	1935	북제주군	關西大中退	주식회사	사업전향
康○○	1956	구좌읍	서울대中退	주식회사	기업계승
康○○	1945	표선면	同志社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康○○	1931	표선면	濟州農高卒	유한회사	사업전업
姜○○	1937	중문동	同志社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康○○	1943	구좌읍	五賢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康○○	1950	서귀포시	東京經濟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康○○	1954	표선면	明治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姜○○	1939	서귀포시	立命館大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姜○○	1940	한림읍	불명	개인경영	사업전향
康○○	1927	서귀포시	同志社大卒	개인경영	생계유지
康○○	1928	서귀포시	中央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姜○○	1943	애월읍	建國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康○○	1926	표선면	大阪專門學校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康○○	1929	제주시	西野田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康○○	1958	제주시	明治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康○○	1943	표선면	慶應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康○○	1928	서귀포시	同志社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高○○	1934	구좌읍	旱稻田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高○○	1947	제주시	建國高卒	개인경영	생계유지
高○○	1933	제주시	興國商高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高○○	1932	제주시	關西學院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高○○	1931	제주시	廣島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高○○	1933	한림읍	浪速短大中退	개인경영	생계유지
金○○	1950	조천읍	近畿大學	주식회사	기업계승
金○○	1922	구좌읍	東京工大中退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40	구좌읍	商業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25	성산읍	大朝町立中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金○○	1920	제주시	高卒	개인경영	생계유지
金○○	1953	조천읍	同志社大卒	개인경영	기업계승
金○○	1945	제주시	大學中退	개인경영	기업계승
金○○	1920	제주시	關大二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40	제주시	關西學院大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金○○	1938	구좌읍	大阪經濟大中退	주식회사	사업전향
金○○	1942	제주시	韓國航空大中退	개인경영	사업전향
金○○	1942	서귀포시	同志社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金○○	1931	제주시	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45	제주시	明治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45	제주시	大阪經濟大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金○○	1956	제주시	城東工高卒	개인경영	생계유지
金○○	1923	한림읍	帝國商業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32	표선면	靜岡市立第一中中退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21	조천읍	舊制難波商業學校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金○○	1944	제주시	同志社香里高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金○○	1948	표선면	上宮高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朴○○	1954	제주시	大阪經濟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朴○○	1924	애월읍	中央高等工業學校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朴○○	1930	서귀포시	中央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朴○○	1933	제주시	大阪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朴○○	1945	제주시	早稻田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白○○	1933	제주시	高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邵○○	1945	조천읍	大阪市立生野工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宋○○	1952	남제주군	大阪學院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安○○	1944	애월읍	京都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安○○	1915	표선면	城東商業學校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梁○○	1938	한림읍	建國高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梁○○	1922	조천읍	高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梁○○	1949	조천읍	近畿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吳○○	1936	남원읍	高卒	유한회사	사업전업
吳○○	1931	구좌읍	關西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吳○○	1930	한림읍	大阪市立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吳○○	1954	제주시	關西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吳○○	1928	제주시	關西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李○○	1932	조천읍	關西大卒	유한회사	사업전업
李○○	1939	대정읍	關西大卒	주식회사	가업계승
李○○	1950	구좌읍	大阪工業大中退	주식회사	가업계승
李○○	1923	제주시	舊制商業學敎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マイ너리티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연구

李○○	1917	중문동	高小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任○○	1932	구좌읍	中央大中退	주식회사	사업전향
任○○	1941	한경면	法政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林○○	1925	대정읍	大阪興國商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林○○	1955	대정읍	近畿大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趙○○	1932	한림읍	大阪市立天王寺 商高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車○○	1951	한림읍	成器高卒	개인경영	기업계승
車○○	1952	한림읍	建國高卒	주식회사	기업계승
崔○○	1954	한경면	泉尾工業高卒	개인경영	사업전향
韓○○	1941	한림읍	濟州農業高卒	주식회사	사업전향
韓○○	1926	한림읍	舊制商業學校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玄○○	1936	제주시	浪速短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玄○○	1923	서귀포시	舊制中學校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洪○○	1938	한림읍	法政大卒	주식회사	사업전업

주 : 재일제주인 기업가별 자료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 작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일부 기업가가 추
가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음.

자료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등에서 필자 조사 작성.

<부록 2>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기업가	회사명	설립	경영이념	유형
康○○	イツツ製靴	1985	사랑(종업원과 가족의 존재가치 인정)	규범형
姜○○	ユニオン觀光	1974	성실	자계형
康○○	旭成型工業所	1967	거래처 간의 신뢰	방침형
康○○	谷山物産	1955	지속성은 힘이다	규범형
康○○	ミツマル産業	1960	노력, 근면	자계형
康○○	興亞工業	1937	거래처 간의 엄격한 공사 구분	방침형
姜○○	ツキモリグループ	1948	자만을 하는 일	자계형
姜○○	大和プラスチック	1975	견고한 거래	방침형
康○○	味樂園	1979	성실	자계형
康○○	三協化成	1949	사원(종업원) 일체	규범형
姜○○	八極設計	1971	학식, 경험을 살려서 자립	규범형
姜○○	神榮ゴム糊引工業所	1960	견실경영	방침형
姜○○	シャン・シューズ	1968	타인에게 성실을 보여줌	자계형
康○○	五鈴化學工業所	1963	영속성, 계속성	규범형
姜○○	丸和ゴム工業所	1973	견실경영	방침형
康○○	サンライズ	1954	성실	자계형
康○○	大谷化學	1972	지역연구에 관심	개방형
康○○	朝日興産工業所	1975	일관성, 지속성	규범형
姜○○	ひかり住建	1979	성실, 근면	자계형
康○○	富士電線工業	1955	성실, 신용, 인간중심경영	자계형
康○○	信谷商店	1962	경제발전에 기여, 실천	개방형
康○○	城東製鋼	1940	성실	자계형
康○○	三和化成	1970	전문화(대리점 판매시스템 구축)	방침형
康○○	康本化學工業所	1972	신용우선주의	자계형
高○○	高電社	1982	유연성($+\alpha & -\beta$)	규범형
高○○	大格工業	1979	시련 극복	자계형
高○○	日榮化學工業所	1967	어려운 난관을 극복	자계형
高○○	藤原寫眞製版	1975	성실	자계형
高○○	高山舗裝	1975	일에 대한 격려	규범형
高○○	タカヤマ金屬工業	1969	보다 좋은 제품, 밝은 직장, 사회에 공헌	방침형
高○○	丸喜船舶	1966	견실경영	방침형
高○○	高島金屬工業	1951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	규범형
金○○	三興化成	1960	가족을 중요하게 여김	자계형

金〇〇	東大門	1971	성실	자계형
金〇〇	珈琲館 白馬	1973	지역사회, 정직, 성실	자계형
金〇〇	アサヒ産業	1969	일을 취미로 삼아 다각적 경영을 시도	규범형
金〇〇	松本秀商店	1973	기술 습득	방침형
金〇〇	平和化成工業所	1968	사업을 개척하고 경영권 위양	방침형
金〇〇	東來運輸	1967	견실, 성의, 정직	자계형
金〇〇	豊満商会	1950	제품 충실에 무엇보다도 노력	방침형
金〇〇	金井	1966	제품화, 화합	규범형
金〇〇	丸新塗裝工業所	1964	품행	자계형
金〇〇	住吉金屬	1963	일을 열심히 함	자계형
金〇〇	グローバル	1976	업계 발전에 공헌	개방형
金〇〇	サンアイ興産	1970	성실	자계형
金〇〇	伊東化成工業所	1970	사람 간의 화합	규범형
金〇〇	大進金屬工業	1973	일을 열심히 함	자계형
金〇〇	大起紡績	1968	노력은 힘이다	자계형
金〇〇	シンヨー運輸	1978	사업을 부흥하게 만듦	방침형
金〇〇	藤田土地	1971	자립	규범형
金〇〇	福井製作所	1980	인생을 유익하게 지내는 일	개방형
金〇〇	丸福商店	1960	공사다망	자계형
金〇〇	泉商事	1981	노력	자계형
金〇〇	東大阪鑄工	1965	기술연마, 독자적 노하우	방침형
金〇〇	三光商事	1978	성실하게 노력하는 일	자계형
金〇〇	松井塗裝工業所	1973	자식의 교육을 위해 사업에 정렬	방침형
金〇〇	心商	1980	윤택함, 패션, 미술적 감각	방침형
金〇〇	アルファシユーズ	1985	자신의 일은 자신이 개척하는 사고	규범형
金〇〇	日產化成	1966	세심방담(細心放膽)	자계형
金〇〇	龍美化學工業所	1968	성실	자계형
金〇〇	哲商社	1969	신의예절, 국제 감각	개방형
金〇〇	光洋化學	1963	약속 엄수	자계형
文〇〇	光化成工業所	1960	기초를 단단하게 함	방침형
文〇〇	文榮美術紙工所	1980	건강제일,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	규범형
朴〇〇	大森商店	1968	인내, 근면	자계형
朴〇〇	新井ゴム	1967	고품질 제품을 시장에 판매	방침형
朴〇〇	關西綜合保險センター	1981	승부, 우애	규범형
朴〇〇	光硬質鍍金工業	1959	건강, 성실	자계형

朴○○	ネスター電機製作所	1966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물을 볼 것	방침형
朴○○	東洋企業不動産部	1948	성실, 좋은 물건을 엄선해서 거래	방침형
朴○○	木戸製靴	1968	노력, 실적	자계형
朴○○	近畿ビニール	1967	원가관리, 안정적인 수익에 노력	방침형
白○○	ミズハラゴム	1986	건강	자계형
邊○○	原本金型製作所	1955	가정에서 부모를 친절하게 모심, 유교정신	자계형
邵○○	大松塗裝工業所	1955	정직, 진실	자계형
宋○○	進興	1965	창의, 공부, 실행	규범형
安○○	壽住建	1981	자립을 실현함	규범형
安○○	安田工業所	1972	소비자 요구에 따른 제품개발, 친목교류	방침형
安○○	安田商店	1954	견실경영	방침형
安○○	日本有機化學工業	1937	성실, 인내, 신용	자계형
安○○	安田化成工業所	1964	인정미, 창조	규범형
梁○○	ヒージー	1921	동포사회에 시간, 노동, 돈을 갖고 봉사	개방형
梁○○	綠食道園	1968	서민적 분위기 존중, 소박한 점포 운영	개방형
梁○○	モアシューズ	1972	노력, 좋은 제품을 엄선하게 제조	방침형
梁○○	協進美術止化工	1977	인생을 유익하게 사용함	개방형
梁○○	日興電化工業所	1947	과거의 경험·기술을 살려서 신 분야 개척	방침형
梁○○	日興化成	1967	성실	자계형
梁○○	中央通商	1976	다각적 경영 노선을 갖고 착실히 수행	방침형
吳○○	松田商店	1967	밝게 행동, 성심, 정직	자계형
吳○○	石原ゴム工業	1949	신념	자계형
吳○○	丸和	1964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감	자계형
吳○○	伸和化成工業所	1978	시간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함	자계형
吳○○	和田商店	1954	적극성	자계형
吳○○	和田商店	1954	노력, 지속성은 힘이다	자계형
禹○○	宇垣土木	1942	하루하루 생활에 최선을 다함	자계형
李○○	大星製作所	1966	일을 신중하게 처리함	방침형
李○○	高麗石材店	1970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 존중, 양심	규범형
李○○	森山繁商店	1955	재일동포를 위해 살아감	개방형
李○○	城東化學	1965	원만한 가족, 일에 충실, 신용	자계형
李○○	共榮產業	1953	경영은 전향적인 자세, 업적은 확대	방침형
李○○	レストラン 杉	1959	단결, 결단, 실행	규범형
李○○	ナガセカラー	1983	수요에 응해서 일을 함	방침형
李○○	不二化學	1988	평소 절약이 생활신조	자계형

李○○	マルサ商會	1964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활동	개방형
李○○	進光産業	1960	신수요 개척, 노력, 자립	방침형
李○○	三協金屬工業	1983	안정적 노선으로 경영함	방침형
李○○	興和管材	1964	교육, 사회, 지역발전에 공헌	개방형
李○○	福助アルミ鑄造所	1955	성실, 성의	자계형
任○○	大洋山業第一電化工業所	1960	성실	자계형
任○○	電飾工業	1972	수준 높은 제품을 제작	방침형
任○○	リバーリッヂシューズ	1983	근검과 노력	자계형
任○○	豊忠貿易	1973	인류 사회에 공헌	개방형
林○○	林紙器	1953	동포와의 공존 자세를 지향	개방형
林○○	林紙器	1953	양심적 상행위가 호감을 가짐	방침형
丁○○	押海製作所	1967	박리양산, 서민의 수요 동향	방침형
趙○○	原田建築塗裝	1969	신수요 개척	방침형
趙○○	原田商店	1947	정직	자계형
趙○○	原田商事	1965	화합, 근면	자계형
車○○	ハピニズシューズ	1970	열심히 노력하는 일	자계형
車○○	ランタンシューズ	1980	근면, 노력	자계형
崔○○	星野化学工業所	1961	개척정신	규범형
崔○○	ライオン化成工業所	1981	기업은 사람이다	규범형
韓○○	大榮商事	1984	정직	자계형
韓○○	東溪興産	1960	민족의 자랑, 자주성	개방형
韓○○	ニッコーグラビア印刷	1976	강한 경영을 유지함	방침형
玄○○	大和合成樹脂工業所	1978	인내, 성실	자계형
玄○○	延山化研工業所	1958	대충 살아가지 말 것, 가족에게는 엄격	자계형
玄○○	共榮産業	1982	일, 건강	자계형
洪○○	マルワ商店	1967	노력	자계형
洪○○	ロンドン製靴	1982	매일 매일 노력	자계형

주 : 경영이념 자료가 양호한 기업가에 한정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에서 필자 조사 작성.